

코로나發 실적악화 불가피... 목표주가 잇따라 하향

투자보고서 하향조정 10곳 달해
삼성·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
연예인 입국제한에 엔터도 타격
소비침체에 유통주 잇따라 낮춰

“증시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패닉’(공황) 상태다. 상장가 목표주가 추락하는 이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불투명해져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증권사가 기업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지난 13일 목표주가를 올린 투자보고서는 2개였고, 주가 하향조정 보고서는 10개에 달했다.

◆ 시총 1,2위 모두 '목표주가 하향'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6만7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하

〈주요 종목 목표주가 하향 현황〉

종목	증권사	적정주가(원)		감소폭
		현재	이전	
삼성전자	하나금융투자	63000	67000	-6.00%
SK하이닉스	신한금융투자	125000	135000	-7.40%
CJ CGV	신한금융투자	28000	53000	-47.20%
롯데하이마트	유진투자증권	27000	35000	-22.90%
에스엠	현대차증권	36000	50000	-28.00%
현대차	유진투자증권	240000	260000	-7.70%
기아차	유진투자증권	40000	46000	-13.00%
GS홈쇼핑	현대차증권	173000	213000	-18.8%

/각사 리포트

향 조정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IM), 가전(CE) 부문 영업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IM 및 CE 부문에서 제품 출하량이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며 “채택근무 영향 등으로 창출되는 수요가 데이터센

터·서버 시설투자를 촉진하면서 서버 출하량은 성장할 것이지만 노동집약적 생산 라인 가동 등으로 스마트폰·노트북 등 출하량은 역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나금융투자는 SK하이닉스의 목표주기도 낮췄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지만 실적 감소에 따라 목표주가는

기존 11만2000원에서 10만4000원으로 7.14% 하향조정했고, 신한금융투자 역시 목표주가를 13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7.41% 하향조정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연초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한 바 있다. 당시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종전 6만40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14.1% 올렸고, 메리츠증권도 6만3000원에서 7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변수를 맞은 반도체 업종은 1분기 실적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애플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1분기 예상 순이익은 연 초 전망치보다 1.3% 낮아졌고, SK하이닉스는 25.8% 줄어든 상황이다.

◆ 엔터업종은 목표주가 반토막

엔터업종의 타격은 심각하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영화 관람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영화 1등주인 CJ CGV의 목표주가는 5만 3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또 국내 연예인의 입국제한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의 목표주가가 잇따라 하향 추세다.

유진투자증권은 에스엠 목표주가를 기존 4만7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23.4% 내렸고, 현대차증권은 JYP 목표주가를 3만1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유성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내의 모든 활동이 중단돼 있으며, 2분기까지 지속될지 가향 후 실적과 주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이 되어 실적과 주가의 회복이 가능하단”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GS홈쇼핑, 롯데하이마트 등 소비 침체에 따른 유통주의 목표주가가 하향조정되고 있으며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목표주가가 10% 가까이 조정받고 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외국인, 지난달 국내주식 3.2조 순매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총 보유액 545조... 시총 의 33.7%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원이 넘게 팔아치웠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2250억원을 순매도해 한 달 만에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2조 9700억원, 260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중동(300억원)만 소폭 순매수했고, 미국(-1조7000억원)과 아시아(-8000억원), 유럽(-4000억원)에서 모두 순매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독일(4000억원), 벨기에(4000억원), 국제기구(4000원) 등이 순매수했다. 반면 미국(-1조7000억원)과 룩셈부르크(-4000억원), 말레이시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 십억원, 결제기준)

구분	2019년			2020년			보유잔고
	상반기	하반기	합계	1월	2월	합계	
주식	1,637	5,225	△3,588	△2,817	408	△3,225	545,067
채권	9,219	10,939	△1,720	5,193	4,623	570	128,717
합계	10,856	16,164	△5,308	2,376	5,031	△2,655	673,784

*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아(-2000억원) 등은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545조1000억원이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7%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3조479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2조 9090억원의 영향으로 총 5700억원을 순투자했다. 두 달째 순투자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미주(7000억원)와 아시아(1000억원), 중동(200억원)에서 순투자한 반면 유럽(-5000억원)은 순회수에 나섰다. 종류별로는 국채(2조원), 잔존 만기별로는 1~5년 미만(2조3000억원)에 주로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2월 말 기준 총 128조7000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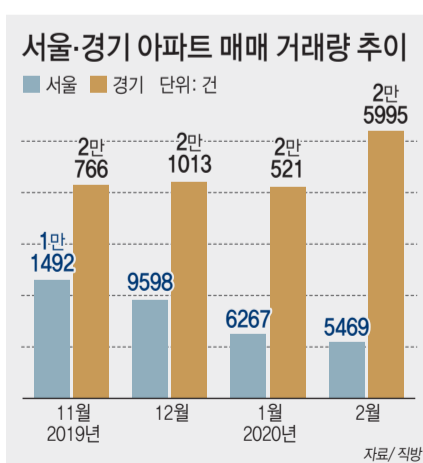
경기도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

지난해 11월 대비 50% 증가
서울은 모든가격대 거래 감소

경기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지난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16일 서울 및 경기지역의 대책 전후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대책발표 이후 모든 가격대에서 매매거래량이 줄어 들었고, 경기도는 2월 들어 거래량이 회복했으며 특히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은 12·16대책 이후 매매거래량이 감소했다. 12·16대책 직전인 2019년 11월에 총 1만1492건 거래됐으나 대책이 발표된 2019년 12월은 9598건으로 16.5% 감소했고 2020년 1월에



도 6267건 거래되며 전월 대비 34.7% 감소했다.

가격대별로도 서울 아파트는 모든 가격대의 거래량이 대책 발표 후 감소했다. 15억원 초과 매매거래는 대책 발표 직전 월인 2019년 11월 1144건에서 12월 676건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 1월

에는 177건, 2월에는 222건 거래되며 크게 줄었다.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매매거래도 같은 기간 2212건에서 1570건, 771건, 691건으로 매월 거래가 감소해 2월 거래건수는 11월 거래건의 31% 수준에 그쳤다.

한편 경기도는 12·16대책 발표 직후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거래량이 소폭 줄었다가 2월 들어 회복세를 보였다. 이 중 규제지역은 대책 발표 직전(2019년 11월, 1만436건 거래)에 비해 2020년 2월에는 1만540건이 거래되며 소폭 회복에 그쳤으나 비규제지역은 2019년 11월 당시에는 규제지역과 비슷한 수준인 1만330건 거래됐지만 2020년 2월에는 1만5455건이 거래돼 11월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12월 준공 예정

대림산업, 현재 공정률 68.8%

대림산업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지난 2017년 7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68.8%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외관작업을 완료했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0가에 자리잡아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은 대림산업 주거철학과 기술력, 콘텐츠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주거단지 2개동, 프라임 오피스인 D 타워, 미술관과 공연장이 결합된 D 아트 센터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거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전용면적 91~273㎡, 총 280가구 규모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준공되면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이 일대가 신형 고급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성수동은 서울시가



대림산업이 서울 성수동에 건설중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대림산업

2003년 1월 서울숲 개발계획을 발표한 후 도심지개발, 한강변 전략정비구역과 더불어 인근 준공업지역에 지속적으로 첨단업무시설이 들어서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강변에 ‘아크로’가 들어선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한강 남측에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뷰를 바라보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성수동의 중심에서 ‘아크로 트라이앵글’의 꼭지점이 될 전망이다. 대림은 현재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 중인 한남3구역과 신반포15차 사업을 수주해 아크로 한강벨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접수

23일부터 1만300가구 규모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

택이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가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만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며 대상요건을 충족한 자다. /정연우 기자